

# 브라보 안산

## BRAVO ANSAN

NO. 420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⑥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③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5월 25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 사람과 자연의 연결 |

# 제1회 ESP 아시아 총회

##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2016. 5. 30(월) ~ 6. 3(금)

안산시(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홀)



# 제 1 회 생태계서비스 아시아 총회 안산에서 열린다

**Prof. Robert Costanza**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 주요 이력**

**현재 소속**  
호주 크로포드 정책대학의  
공공정책 과정 학과장

**주요 연구 수행 분야**  
통합시스템생태학, 생태경제학, 경관 생태학,  
생태모델링, 생태계획, 에너지 분석, 환경정책,  
인센티브 구조와 제도

**주요 업적**  
코스탄자 교수는 5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 27권의 책 출간.  
ISI 과학기술 논문에 19,000회 이상 인용,  
2004년 이후 ISI 과학기술논문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

생태 분야 전문회의인 제1회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Ecosystem Service Partnership) 아시아총회가 오는 2016. 5. 30(월) ~ 6. 3(금) 5일간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안산시와 경기도, 국립생태원,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회의는 「사람과 자연의 연결」이란 주제로 주요 아시아 국가와 미국, 독일, 호주 등 21개국 300명 이상의 국제파트너들이 참여한다.

이번 총회는 현재 ESP 세계본부 부의장이면서 생태경제학자로 유명한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이 추구하고 있는 실행 목표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는 루돌프 드 흐룟 교수와 공동연구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즉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연간 33조 달러(95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현재까지도 생태계 가치에 대한 논문으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기도 하다. 총회 기간 동안 생태계서비스 리더양성 교육 및 주제별워크숍이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생태관광 시범지역을 돌아볼 계획이다.

자연이 주는 혜택은 더 이상 무료가 아니다. 여러 매체에서 생물들의 개체수 감소 또는 먹이사슬이 변하는 현상은 당장은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생태계가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습지, 갯벌 등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는 안산시는 이번 총회를 통해 해안, 하천, 산림, 도시생태계 등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연구 및 실증 사례를 접해 해양생태도시로 발전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문의 : 환경정책과(031-481-2613)



# 안산 지역경제 한 축을 이루는 소상공인과의 대화 사람중심 이야기마당 22번째 열려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이 안산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소상공인과의 대화로 22번째 순서를 맞았다. 이번 이야기마당은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골목경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돼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선부동 소재 안산제1종합시장에서 진행됐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지역경제과 과장은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2016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보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을 나타냈다. 또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교한 상인대학과 200개 사 컨설팅, 116개 사에 대한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이 올 한 해 동안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과 이를 위한 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2017년 초까지 구역지정 승인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초지동 시민시장 상인회 외에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상인회 등록을 유도해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를 이루도록 지원할 계획도 아울러 내비쳤다.

이야기 마당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필요’, ‘피부애와 닿는 지원시책 발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소통창구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형마트·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 초토화 등에 대

해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인구수에 비해 더 많은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안산이라며,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대형마트 한곳에 딸린 안산 시민이 수 천 명으로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이 조화를 이뤄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또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으며 안산의 전체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주택개발과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심상권 활성화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로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야기 마당은 시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야기로 마쳤다.

백미란 명예기자 \_whity0218@naver.com



# 우리지역 문화재유적지 우리 손으로 가꾸요 안산동, 안산읍성 야생화단지 잡초 제거 솔선

안산읍성 야생화단지에 안산동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모였다. 지난 5월 16일부터 18까지 3일 동안 회원들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교대로 나와 옷자란 잡초제거에 나섰다. 안산읍성 관아지 주변에는 몇 해째 지역주민들이 공들여 심고 가꾸는 야생화단지가 있다. 현재 야생화단지에는 두 해 전 심어 놓은 개양귀비 꽃이 활짝 피 주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답지만 잡초 또한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지역 통장들이 잡초제거에 나선 것이다.

통장협의회 신준화 회장은 “애써 가꾸은 야생화 꽃밭에 잡초가 무성해 우리들이 팔 걷고 나섰다.”며 “지금은 개양귀비 꽃만 피었지만 6월에 벌개미취도 연자죽빛 꽃을 피우고 시기를 달리해 구절초까지 꽃을 피우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수암봉에 오르는 등산객과 안산읍성 관아지를 찾아오는 탐방객에게까지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봄에 활짝 피어 생기로움을 뽐내는 야생화는 겨울에는 그 잎을 감추고 동면에 들어가며, 이듬 해 봄에 보란 듯이 다시 피어난다. 안산읍성 야생화단지에는 겨울추위를 이겨낸 개양귀비와 구절초, 벌개미취가 시기별로 흐드러지게 피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을 잡아끌 것이다.

안산시 문화예술과 시설관리계 계장은 “지역주민들이 솔선

해서 문화유적지 주변관리에 앞장서 나서준 것이 감사하다.”며 “안산읍성 관아지는 안산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리해 나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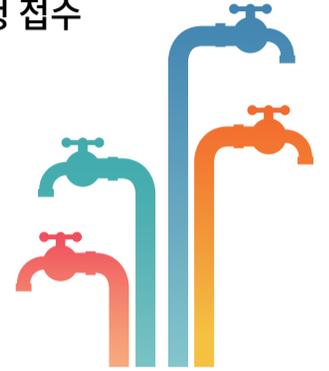
안산읍성 관아지는 시·도 기념물 제127호로 등록된 문화유적지로서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까지 사용되었으며, 해안을 통해 들어오는 왜구를 피해 세워진 산성이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3436]  
백미란 명예기자 \_whity0218@naver.com



# 노후주택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 접수



안산시는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함을 겪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28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관 교체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녹물 출수, 통수량 감소로 수도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며,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80% ~ 30%를 차등 지원하고, 세대별로는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 원, 공용배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 기간은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수도시설과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로 우편통지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이 확보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전용면적이 적은 세대와 건축물 경과연수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 문의 : 안산시 수도시설과 [031-481-2037]

#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시행



###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 계기 마련

안산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 관련 비리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주택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난달 공동주택 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인 주택감사계를 주택과 내에 신설한데 이어, 앞으로 민간 전문감사관을 위촉하고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감사체계를 마련하여 올 하반기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반기에 민간 전문가 25명을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용역 및 관리비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다. 올해는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한다. 또한 입주자 등 3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 문의 : 안산시 주택과 [031-481-2397]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중앙도서관은 지난달 독서 나눔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3개소(사단법인 소리샘,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만나복지원), 어르신 관련 기관 3개소(부곡종합사회복지관, 백석노인주간보호센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총 6개소를 선정하여 5월 23일부터 7월까지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독서 나눔 네트워크’ 사업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의 사업이며, 순회문고 운영 및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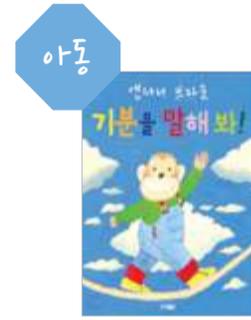
‘장애인과 함께 책읽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독서치료프로그램으로 동화책을 들려주고 만들기, 그리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북 피니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독서진흥프로그램으로, 책을 읽은 후 책갈피 및 미니북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중앙도서관에서 강사 파견 및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지원하며, 참여기관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를 제공한다.

☎ 문의 : 중앙도서관(031-481-3864)

## 책 읽는 안산 / 5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표현의 힘 : 내 마음속 11가지 심리



### 기분을 말해 봐!

저자 앤서니 브라운 / 출판사 웅진주니어

「기분을 말해봐」는 유아를 위한 감정 그림책으로 소심하게 움츠러 있는 침팬지에게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침팬지는 여러 상황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하나씩 이야기 하면서 스토리가 이어진다. 성장의 폭발기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방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정 및 심리 등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이 도와 줄 것이다.



### 내 편이 되어줄래?

저자 노미애 / 출판사 팜파스

외롭고 서툴고 상처받은 심대를 위한 치유 에세이 「내 편이 되어 줄래?」는 아닌 척하지만 실은 관계 때문에 무척 힘겨워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관심과 ‘지지적인 관계’를 바라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공감 에세이다.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십 대들만의 관계 심리와 그 속에 담긴 복잡다단한 감정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피주는 심리치유서다. 청소년들이 화를 조절하며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도 알려준다.



### 강신주의 감정수업

저자 강신주 / 출판사 민음사

인간은 이성과 감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 감정을 죽이는 것, 혹은 감정을 누르는 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다. 살아 있으면서 죽은 척하는 것이 어떻게 행복이겠는가. 그러나 다시 감정을 살려내야만 한다. 이것은 삶의 본능이자 삶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이성과 감정에 관하여 평생 고민해 오고 현실에서 부딪히며 다시 생각했던 본인의 철학이 녹아 있는 대표작이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안산 시승격 30주년

안산시도서관에서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시행합니다!  
이제는 서점에서 바로 골라 대출해보세요

운영기간: 2016.5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란?**  
희망도서를 동네 서점에서 골라 바로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희망도서 서비스는 지속 운영합니다.)

-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britg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회원 선착순 200명이며 도서대출 실적, 연체 이력 등을 반영하여 우수 이용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지정서점에서만 대출 및 반납 가능합니다.  
\*한가담문고 신청가능

※ 신청 자격

- ① 안산시 도서관 회원 누구나
- ② 최근 3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는 회원
- ③ 최근 6개월 이내 대출실적이 있는 회원

- ◆ 대출 권 수 : 1인 월 5권
- ◆ 대출 기 간 : 14일(연장불가)
- ◆ 대출 및 반납 : 도서관 회원증 지참 후, 대출 및 반납 가능
- ◆ 유 의 사 항
  - 희망도서 선정기준 제외도서(문제집, 참고서 등)는 이용 불가
  - 미반납 및 연체가 있는 회원은 이용 불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공지사항 참조

Ansan Joongang Library  
안산중앙도서관 문의 ☎481-3868

안산품  
안긴 대부도



# 부모님이 계시는 곳, 대부도 어버이날 풍경

어버이날이 되면  
대부도의 경로당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열린다.  
도시와는 조금 다른 풍경으로  
다가오는 대부도의 어버이날.  
그 중에서도 신선이 내려와 맑은 물에  
목욕을 했다는 뜻의 이름이  
붙여진 선감동을 찾았다.

행사가 열리는 시간인 11시에 마을 어르신들은 일찍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경로당 앞마당에는 내리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치고,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을 테이블이 자리의 주인을 기다리듯 줄지어 있다. 경로당 그늘 가에는 선감동 부녀회 어머니들이 입가에 미소와 대화가 끊이지 않은 채 음식을 접시에 덜어내고 있다. 반찬 한 가지 준비하는 데에도 손이 여러 번 가기 마련인데, 많은 음식들을 미리 준비하여 떡도 보기 좋게 접시에 나누고, 과일까지 즉석에서 썰어 나눠주시는 어머니들의 정성이 가득한 마을행사.

상당히 많은 양의 행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연신 감탄하며 “도시 사람들은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다 보니 외식을 하든지, 뷔페를 부르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안 힘드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부녀회장님은 국을 데우는 뜨거운 불 앞에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날마다 요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 년에 한 번 마을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날인데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누가 힘들다고 생각하겠어요.” 라고 하신다. “원래는 해마다 계도 사서 양념계장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드리곤 했는데, 게 값이 너무 올라서 못해드렸는데 그게 아쉽네...” 라는 전 부녀회장의 말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진심이 느껴졌다.

## 60년이 넘는 어버이날 행사

선감동의 어버이날은 언제부터 마을잔치가 시작되었을까. 경로당 안쪽에서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계시던 할머니께 여쭙었더니 “잘 모르겠어. 시집온 지 60년이 넘었는데 해마다 항상 이랬어.” 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또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부족한 음식을 다시 채워놓고 손님을 맞는 등 부족한 일손을 거둬주고 있던 마을청년은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했다. “어렸을 땐 엄마가 나와서 밥 먹고 가라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 나와서 결국 동네 친구들을 다 만나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섬에 살던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선감동에는 청년회 아닌 청년회가 존재한다. 어르신들이 ‘젊은 애들’ 이라 부르는 청년회 분들의 연령대가 40 ~ 50대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에 남은 이들은 해를 거듭하며 젊은 청년에서 늙은 장년의 어른이 되었고 또 그들이 중년의 아버지가 되어 노년의 부모님을 섬기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 섬마을의 행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가능하기 어렵다 생각되니 안타깝지만 하다.

마을 주민들의 삶 속에, 기억 속에 당연하다는 듯 자리하고 있는 어버이날의 모습. 일 년에 한 번뿐인 어버이날 행사라지만, 마을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쏟는 노력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마을주민 모두가 자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 건넌집 할아버지까지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가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어올 수 있던 것이 아닐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 도시와는 달리 오랜 세월 서로의 곁을 지키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축적되어온 힘과 이야기가 이들을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글 이슬기



# ‘실사구시 實事求是 정신의 계승’ 제20회 성호문화제 연다



5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2일간 성호공원과 이익선생 묘역에서 ‘제20회 성호문화제’가 열린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성호문화제는 성호 이익 선생의 정신과 학문의 업적을 기리고 아울러 안산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널리 알려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는 지역문화예술제로 자리 잡았다.

5월 28일(토) 오전 11시부터 이익선생 사당에서 진행되는 전통유교식 서원제인 이익선생 숭모제를 시작으로 삼두회 체험마당, 둔배미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올해에도 지역 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실학골든벨’을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실학사상과 우리 고장 안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성호사상 패널리시회’는 성호이익의 생애와 사상, 「성호사설」에 담긴 내용을 삽화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도 유아부터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한 성호 백일장과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성호사생대회가 열리며,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 삼두회 체험마당, 우리문화 체험마당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한다. 특히, ‘삼두회 체험마당’은 성호 이익의 애민적 실학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체험행사가 될 것이다. ‘삼두회’는 이익 선생이 콩으로 만든 세 가지 음식인 콩죽, 콩나물, 된장을 차려 놓고 친척들을 중심으로 개최한 시회(詩會) 모임이다. 이익 선생은 안산에 머물며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때에 직접 콩 농사를 지어 황두즙을 끓인

콩죽·황두채를 절인 콩나물·황두메주를 담가 만든 된장 이 세 가지를 먹거리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다. 또한 삼두회를 통해 음식에 사치하는 탐관오리들을 비판했으며, 굶주림에 고생하는 백성들의 식생활에 무엇보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콩을 곡식 중에 으뜸으로 꼽고 콩에 대한 예찬시를 남기기도 했다. 삼두회 체험마당에서는 맷돌로 콩을 직접 갈고, 콩나물시루에 물주기, 떡메치기, 메주 만들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체험마당들은 기성세대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전통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안산시립국악단, 안산경기민요단, 판소리, 한국무용(화선무), 줄타기, 사자탈춤 등 다양한 전통예술공연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한다.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lhanmail.net

# 안산시립합창단 제53회 정기연주회 현대합창의 향연

스페인 바르셀로나 제11회  
세계합창심포지엄 초청기념음악회  
시리즈 I



안산시립합창단의 제53회 정기연주회 ‘현대 합창의 향연’이 오는 6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연주회는 안산시립합창단이 2017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세계합창심포지엄에 한국을 대표하여 초청됨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제53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12월에 있을 55회 정기연주회까지 각기 색다른 주제로 시리즈 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대부분의 레퍼토리는 한국에서 초연되는 현대합창곡들로 먼저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이며 안산을 대표하는 예술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를 배경으로 한 우효원 작곡의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함께하는 합창조곡’, 캐나다의 세계적인 작곡가 Imant Raminsh의 Ronda de los Colores(색의 순환), 인생과 사랑을 테마로 Daniel Elder가 작곡한 In Your Light (당신의 빛 안에서)외 2곡이 연주된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합창작곡가 Ola Gjeilo의 Dark Night of the Soul(영혼의 깊은 밤), 그리고 안무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진규영 작곡의 ‘신 거문도 뱃노래’와 김규현 작곡의 현대화성에 의한 창작곡 ‘충무공 이순신’ 등 국내외 유명작곡가들의 합창곡을 안산시립합창단의 뛰어난 음악해석과 안무와 영상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완벽한 공연이 될 것이다. 또한 관객의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콜로라투라(Coloratura) 소프라노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의 특별무대도 준비되어 있어 그 감동을 더할 것이다.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4)  
안산시립합창단(031-481-4098, www.ansanarts.com)



# 누구나 쉽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국내외 여행스케치를 통한 다양한  
풍경화 작품 선보여

단원미술관 제1관에서 오는 5월 29일까지 연홍전(連紅展)이 열린다.

국내외 107명의 화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연홍전은 제9회 정기전이다. 2008년 연홍미술관 개관기념전을 시작으로 서울, 수원, 안산, 목포, 연홍도 등에서 매년 100여 명의 화가들이 참가해 전시회를 갖고 있다.

연홍회 전시 관련 담당자는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전시는 아마추어부터 전업 화가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다.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함께 그림을 그리고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홍도라는 고흥군 거금도에 속해있는 섬 안의 섬으로 폐교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연홍미술관으로 명명하고, 미술관 개관 기념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전시를 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홍미술관은 전라남도 지역 유명 미술관으로 성장

하고 있으며, 연홍회는 제2의 거점인 안산, 수원에서도 명실상부한 유명 미술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연홍회는 국내외 스케치 여행을 통해 단합의 시간을 갖는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따라 포르투갈의 까부디 로까까지의 스케치 여행, 히말라야 트래킹 스케치, 티벳, 스리랑카, 그리스 산토리니 등 스케치 여행을 다녀왔다. 또한 연홍회는 한국의 자연, 빛의 인상이라는 주제의 프랑스 파리, 시테 데자르 방문 전시를 필두로 낭트, 미국 뉴욕,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미술관전, 일본 오사카 시민갤러리, 네팔 카투만두, 밴쿠버, 베이징 등 해외 전시를 가지기도 했다. 작년부터는 일본화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 스케치를 통한 다양한 풍경화를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안산문화재단 기획공연(6월)



클래식  
피아노 배틀

**공연일정** 2016년 6월 4일(토), 5PM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출 연** 안드레아스 کن, 폴 시비스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중학생 이상 추천)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공연내용**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독일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کن과 폴 시비스가 <피아노배틀>로 국내 무대에 오른다. 2009년 홍콩시티페스티벌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공연 <피아노배틀>은 중국, 홍콩 대만 등 여러 아시아 권에서 매진투어를 이루어냈다. 2010년에는 피아노의 도시,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초연을 성공리에 마쳤고 이어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도 거대한 행진이 이어졌다. 아시아권에서 큰 사랑을 받은 그들이 드디어 안산 공연을 앞두고 있다.



뮤지컬  
그여름, 동물원

**공연일정** 2016년 6월 24일(금) ~ 6월 26일(일)  
**공연시간** 금, 8PM / 토, 3·7PM / 일, 3PM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출 연** 박호산, 최승열, 임진웅, 김보선, 방재호 등  
**관람연령** 14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R석 4만 5천원, S석 3만 5천원  
**공연내용**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의 노래! 대한민국 대표 포크그룹 <동물원> 그리고 김광석의 명곡이 뮤지컬로 탄생하다. 뮤지컬 <그여름, 동물원>은 1988년 그룹 '동물원'이 처음 결성될 당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크그룹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실제 그들의 이야기와 음악을 바탕으로 한 자화상 같은 뮤지컬이다. 시대를 넘어 사랑받아 온 '동물원' 그리고 김광석의 이야기와 음악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산속 둘레길 걸으며 나와 마주하는 힐링타임

힐링하기 좋은 숲 ;

신록의 계절이다. 눈을 두는 곳마다 초록으로 가득하다. 바람에 춤추는 나뭇잎이 이토록 싱그러웠던가. 매 계절이 새롭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건 내 안의 것들이 매달라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자연에 매료되어 가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식구들의 재잘거림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날이 종종 있다. 쏟아 부은 에너지만큼 기쁨이나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을 때 지쳐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채워지지 않은 내 기쁨이나 즐거움을 그냥 내버려두기엔 아쉽지 않은가.

지친 마음을 달래기에 제격인 방법은 자연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혼자여도 좋고 마음이 맞는 누군가와와 동행도 좋다. 오랜 세월을 지켜온 웅장한 나무들이 초입에서부터 초대된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

공원을 향하는 발걸음이 두근거린다. 푸르름과 마주하게 될 내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것이다.

백운공원에서는 다양한 길을 만날 수 있다. 낮은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는 길, 산허리 둘레길, 더러는 운치 있는 나무계단이 나타난다. 우거진 숲이 있고 키를 낮춘 풀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묘목이 심긴 산등성이가 있다.

산을 누비도록 허락하는 여러 길에서 좀 더 가까이 자연과 마주한다.

둘레길을 따라 나선 키 작은 야생화들이 꽃을 피우고 나무들과 어우러져 숲을 이루었다.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대로, 낮게 자리한 야생화는 야생화대로 자기 몫을 해내는 것이다.

우리도 각자 위치대로 자기 몫으로 어우러져 있겠지.

5월 숲속에서는 어디를 가든 아카시아꽃과 짙레꽃을 만날 수 있다. 가는 길목마다 발길을 붙잡고 하얀 자태를 드러낸다. 흐드러지게 매달린 아카시아꽃과 향기는 결코 발걸음을 쉬이 내주지 않는다.

햇빛과 바람과 푸르름이 가득한 숲에서는 무거운 상념이 생기지 않는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무를 보고 햇빛과 바람을 벗삼아 고요한 나를 보게 된다. 다정하고 예쁘고 즐거웠던 나를 만나 마음과 몸이 더없이 가벼워진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쉼터 벤치에 앉아 내려다보는 저 멀리 풍경은 낮고 작아져 있다.

그 속에서 부대끼고 살아낼 때는 높고 커 보이던 것들이 작아지는 순간이다.

참 고요하고 평화롭기 그지없다. 마음이 스스로 비워져간다.

얼마 전에 우연히 오랜 지인을 만났다.

서로 동행이 있어 길게 인사는 못 나누고 헤어졌지만 서로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다 우리 불현듯 또 보자'라는 말에 '불현듯 좋다'라고 답을 해왔다. 그렇게 우리는 불현듯 즐겁고 다정한 사람을 만난다.

우린 누구에겐가 즐겁고 다정한 사람들이다. 다만 그런 나를 잊고 살아갈 뿐이다.

오늘 숲에서 아카시아잎으로 소꿉놀이 하던 그 좋은 시절로 마음을 되돌려본다.

어느 곳에 눈길이 머물러도 실망스럽지 않다. 계절의 여왕 5월은 늘 그렇듯 즐겁고 다정하게 우리 곁에 와 있다.

나와 마주하며 마음이 가벼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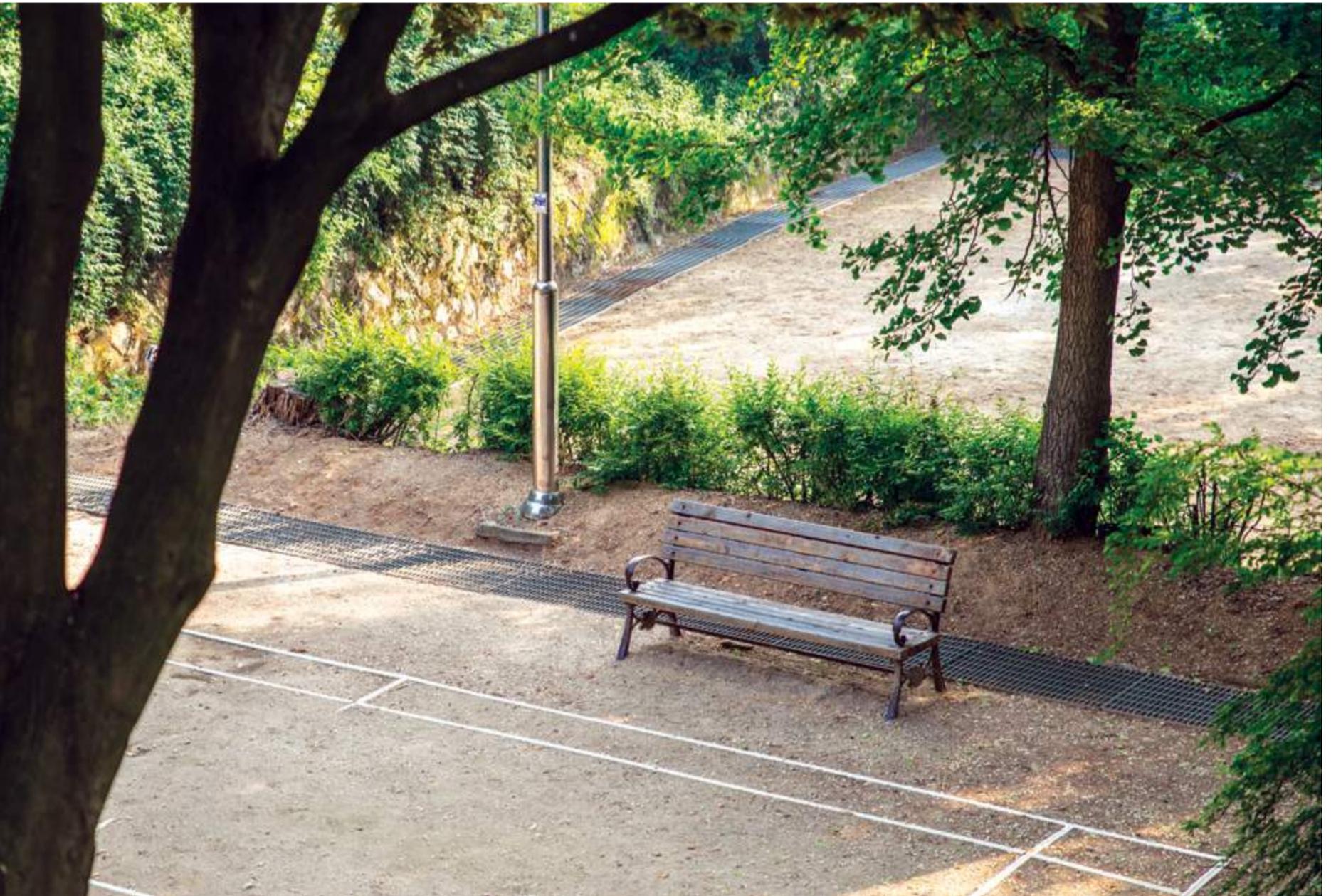


### Prologue

Ecology(자연)와  
Healing(치유)의 합성어인  
에코힐링(Eco-healing)은  
'자연 속에서  
치유력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발바닥에 느껴지는 시원한 촉감과  
숲속에서 자연산 산소와  
피톤치드를 흠뻑 들며 마실 때 느껴지는  
상쾌한 기분은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에코힐링 하러 숲속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장 소** 백운공원  
(단원구 원곡동 중소기업연수원 맞은편)





# 단원고 기억교실 이전 문제 합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담긴 '기억교실'은 어떻게 되나

“저희는 몰랐는데, 교실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시네요. 1년, 2년 지나도 교실에 오니까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그제야 저희도 알았죠. 현장을 보존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공간이 있어야만 오래 기억할 수 있겠구나.” (성빈엄마 인터뷰 중)

원래는 ‘엄마랑 함께하장’과 관련된 인터뷰를 할 계획이었지만 유가족들은 단원고 기억교실(존치교실)과 관련된 문제로 한창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단원고가 5월 5일부터 16일까지 봄방학에 들어가면서, 학교 측에서는 학사일정에 맞춰 15일까지 기억교실을 정리해 리모델링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 유가족들과 문제가 생겼다. 기억교실 존치와 관련된 사회적 협약식도 하기 전, 5일부터 이삿짐차와 포장재가 들어와 이전조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지켜본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에 항의해 교실을 지켰다.

지난 달 27일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등 7개 기관·단체가 합의한 내용은 9일 협약식 이후 ‘기억교실’의 물품들을 안산 교육지원청에 원형 그대로 임시로 옮긴 뒤 ‘4.16교육원’이 건립되면 영구보존한다는 것이었지만, 절차 없이 단순히 이삿짐센터를 통해 짐을 옮기려고만 했으니 항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들이 면담을 갖고, 잘못된 정보로 쌓인 해묵은 오해들을 풀며 합의가 이뤄졌다. 기억교실 물품의 권리는 유가족에게 있음을 확인했고, 기억교실 이전 ‘기한’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는 공사 미비로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이전을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사 완료 시기에 맞춰 교실 이전 계획과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지난 몇 달간 기억교실과 관련된 논란이 봉합됐지만, 앞으로 기억교실을 어떻게 이전·보존할 것인지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단원고 2층과 3층에 있는 기억교실을

찾았다. 2년 전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의 메모가 교실 창가와 칠판에 빛바랜 채 그대로 남아있었고, 가끔씩 아이들이 쓰던 의자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보였다. 막상이 교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개별적인 아이들의 흔적은 물론,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던 많은 사람들의 흔적까지 지워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새 교실 안에 차곡차곡 쌓인 건 먼지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 아픈 역사의 공간이 교실이라는 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진다. 세월호 이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면, 그 시작은 학교가 되어야한다는 것. 빠른 성장이나 결과 대신, 오랜 과정을 거쳐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교육해야한다는 것. 

송보림 명예기자\_ treehelper@naver.com

자연 속에서 인성이 자라는 소리 들리시나요?

## ‘꿈의 숲 어린이집’ 발도르프 교육 현장을 가다



매주 월요일이면 본오동 로컬푸드 직매장 옆 25평 남짓 텃밭은 자연과 더불어 자라는 유아교육 체험장이 된다. 만 3~4세 아이들은 연둣빛 새순처럼 여리지만 그 발걸음은 야무지다. 하루 이를 걸여본 게 아닌 꼬마들의 나들이는 씩씩하기까지 하다.

“바람이 시원해요!”라며 손가락으로 바람을 훑으며 바람의 결을 느끼던 하은이. 대파에 핀 꽃을 보며 빵을 떠올리는 예빈이. 다섯 살 아이들의 눈은 ‘이 세상 가장 서러운 곳에 별뿔별 씨앗을 떨어올린다’던 안도현 시인의 시와 맞닿아 있다. 파꽃 앞에서 오래도록 발을 관찰하는 아이는 시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게 한다.

모종을 사다 심어놓은 방울토마토에서는 노란 꽃이 피었다. ‘꿈의 숲 어린이집’ 김경애 원장은 “언제쯤 따 먹을 수 있을까?”, “오이는 언제 꽃이 피지?”라며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텃밭 교육을 한다. 유아들이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꿈의 숲’은 부모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발도르프 교육은 1919년 루돌프 슈타이너에 의해 세워진 발도르프학교에서 출발한 대안교육으로 발도르프 교육의 핵심은 ‘개별 학생을 고려한 전인 교육’이다. 슈타이너는 인

지적 영역에 치우친 교육에 반대하고, 신체와 정신적 성장에 맞춘 인지, 감각, 사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한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우열을 나누지 않으며 학생 개인의 성장과 요구에 귀 기울인다.

‘꿈의 숲’은 매일 오전에 텃밭과 인근 오목골 공원, 향가울산에서 자연을 탐색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키운다.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수공예와 습식수채화 등 정서에 관련된 활동과 자유놀이와 역할놀이 등 교육예술을 추구한다. 김윤정 씨(36세, 본오동)는 “안산에 공동육아 하는 곳을 알아보던 중 지인소개로 다섯 살 때부터 아이를 보냈어요. 예민한 성향의 아이였는데 자연에서 뛰놀면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더라구요. 성격도 활달해지고, 친화력이 좋아졌다.”며 미소를 지었다.

학습 대신 놀이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안에서 아이의 인성이 자라고 오월의 푸름 속에서 부모는 행복하다.

☎ 문의 : 꿈의 숲 어린이집(본오동, 010-7275-9964) 신선영 명예기자\_ woghkah@hanmail.net

# 인생 최고의 선물은 아름다운 노년(老年)의 모습입니다

한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생활하다 부부의 퇴직과 함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며 이제는 시 쓰는 남편, 노래하는 아내가 되어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있어 찾아가 보았다.

배성자(75세), 오기환(80세) 부부  
1968년에 결혼하여 2남 1녀의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결혼 47주년을 맞은 올해는 남편 오기환 씨의 팔순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오기환 씨는 1999년 교직생활을 마치자 그동안 실 새 없이 앞만 보고 가정과 교직생활을 해온 아내의 고마움에 제일 먼저 외국 여행을 생각했다고 한다. 가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갈 수 없게 된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기에 퇴직 후 10여 년 동안 오지 빼고는 거의 다녔을 정도로 많은 나라를 여행했다. 생각해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겨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긴 것이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뿌듯해 했다.  
얼마 전 오기환 씨의 여든 번째 생일에는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찾아와 축하해주고 그동안 틈틈이 써왔던 아버지의 글을 모아 시집 「삶의 거울에 비친 메아리」를 출간하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같이 나누며 즐거움을 함께했다고 한다. 140여 편의 시 속에는 세월의 흔적과 켜켜이 쌓인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든의 나이, 또 여든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부부라는 인연으로 걸어온 시간만큼이나 가야할 시간들을 차곡차곡

꾸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했다.  
배성자, 오기환 부부는 단원구 노인복지관 어울림 합창단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음악교사였던 아내 배성자 씨의 도움으로 합창 단원 활동을 시작하고 그 외 그라운드 골프, 사진 등 다양한 배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와 격려는 물론 서로의 돌다리까지 되어 주고 있었다.  
배성자 씨는 “지금처럼만 서로를 아끼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참 축복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 축복을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안산시에 시립 실버 합창단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과 단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수줍음 가득한 소녀처럼 살포시 번지는 미소가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스스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느끼는 이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지 한참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100세 시대는 우리의 이야기다.



퇴직 후의 기나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획하여야 할 때란 생각이 들었다. 배성자, 오기환 부부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미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 선 명예기자\_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 hanmarus@naver.com

## 우리 지역의 동호회

# 운동하며 아름다운 경치 즐겨요 화랑 사이클 동호회와 함께 해요

‘자전거 타려면 먼저 안전장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안장을 내 몸과 잘 맞게 맞춰 타야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요. 유산소 운동인 자전거 타기는 전신 운동으로 폐활량도 좋아지고 관절에도 좋은 운동이죠.’

간밤에 비가 내렸고 다소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약속장소로 회원들이 들어선다. 헬멧과 고글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미끄러지듯 달려와 능숙하게 자전거에서 내려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운다. 이정도 날씨쯤이야 라이딩(Riding)을 멈출 수 없다.  
사이클 화랑동호회는 안산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동호회로 화랑유원지 내 국민생활체육 안산시 자전거 연합회에 자리를 틀었다.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정기적인 라이딩과 월례회를 갖는다. 이들 중 11팀의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으며 여성 회원도 20여 명이 활동한다. 43세부터 77세까지 활동 연령의 폭도 넓다.  
화랑동호회 황개문 회장은 관절이 안 좋았는데 자전거 타기 권유를 받고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 관절이 안 좋은 사람

들에게 권하고 싶은 운동이다. 오랜 시간 긴 거리를 타려면 일반 자전거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기어 조정이 가능하고 살짝만 밟아도 힘이 느껴져 타기 편하다. MTB(Mountain Bike) 타는 강습을 받으면 누구나 탈 수 있다고 한다.  
노산옥 회원(76세)은 “정년퇴직하고 등산을 즐겨 하다 우연한 기회에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 12년 정도 되었는데 전신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말해주듯 건강한 웃음을 지었다.  
회원들은 기억에 남는 라이딩으로 춘천, 양평에서의 라이딩을 꼽았다. 새벽 첫 전철을 타고 목적지 부근까지 가서 라이딩을 했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렸다. 목포에서 배에 자전거를 싣고 제주도에 가서 2일 동안 239km를 라이딩했던 즐거움도 와르르 쏟아냈다.



누구에게나 사이클 동호회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관심은 많은데 자전거를 아직 못 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산시 국민생활 자전거 연합회 자전거 강습을 받으면 된다. 오는 11월 말까지 강습이 이뤄진다.

☎ 문의 : 화랑 자전거 동호회(031-410-3151)  
이선희 명예기자\_ iamyou70@hanmail.net

브라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시정 알리미

##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일시** 2016. 5. 28(토) 10:00 ~ 15:00  
**장소**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주관** 안산환경운동연합  
**주요내용**  
 - 재활용품(중고물품) 판매 및 물물교환, 재활용 리폼제품(목공, 재봉) 판매  
 - 환경운동 캠페인 및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 체험행사  
 - 중·고등학생 물품판매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문의** 자원순환과  
 031-481-3536



##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안산시협의회 예선대회

**일시** 2016. 5. 27(금) 13:30 ~ 18:00  
**장소** 안산중앙초등학교  
**참석** 관내 고등학생 500여 명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주요내용**  
 - 퀴즈대회를 통해 북한문화와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여 올바른 통일관 정립  
 - 경기도 본선대회: 6월 8일, 상록수체육관  
 - 전국 결선대회 'KBS 골든벨' 특집방송 (2016년 하반기)  
**문의** 자치행정과  
 031-481-2054



## 2016 계층별 인터넷 취업캠프 운영

**기간** 2016. 5. 26(목) ~ 5. 27(금)  
**대상자** 32명(청년층 19명, 경력단절여성·결혼이민자 13명)  
**장소** 엑스퍼트 연수원  
**위탁기관** 한국CS아카데미(원장 윤민애)  
**주요내용**  
 - 실전면접, 면접 이미지메이킹, 자기소개서 작성, 인간관계훈련 등  
**문의** 일자리정책과  
 031-481-2279



## 2016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16. 5. 20(금) ~ 5. 27(금)  
**사업기간** 2016. 7 ~ 10(4개월)  
**참여부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등 28개 사업 (19개부서)  
**참여인원** 345명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안산시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근무조건**  
 - 1일 6시간 근무(일부사업 주 5시간)  
 - 65세 이상, 3시간 근무  
**문의** 일자리정책과 031-481-3310

## 성호삼두밥상 및 고유가정 음식 시식·체험관 운영

**일시** 2016. 5. 28(토) ~ 29(일) 11:00 ~ 15:00  
**장소** 성호공원  
**주요내용**  
 - 「성호 삼두밥상」 시식·체험관 : 5. 28(토)  
 「성호 삼두밥상」 개발음식 전시 및 홍보관 운영  
 「성호 삼두밥상」 대표메뉴 시식·체험관 운영 : 오방포쌈, 콩가스, 콩버거, 청국장샐러드  
 - 안산시 잊혀져가는 「고유가정음식」 시식·체험관 : 5. 29(일)  
 「고유가정음식」 개발음식 전시  
 「고유가정음식」 대표메뉴 시식·체험관 운영 : 아욱참맛탕, 송어조림, 보양삼계탕  
 - 삼두밥상 및 고유가정음식 설문조사 실시  
**문의** 식품위생과 031-481-2232

## 2016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리기간** 2016. 5. 24(화) ~ 6. 27(월), 35일간  
**추진부서** 민원여권과, 구청 민원봉사과, 각 동 주민센터  
**주요내용**  
 -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사실조사  
 - 무단전출자, 기타 등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문의** 각 동 주민센터



## 2016년도 어린이 및 재활 승마교실 운영 계획

**기간** 2016년 5월 ~ 11월  
**장소** 보험을 가입하고 신고된 승마장 이용  
**인원** 87명(특수학교 등 초·중·고 장애학생)  
**운영내용**  
 -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의 심신수양과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청소년의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승마교실 운영  
**강습기준(승마체험)**  
 - 체험일수 : 10일  
 - 馬배정 : 2인 / 1두 이하  
 - 1회당 강습시간 : 약 60분 / 1인(기승 30분 이상)  
 - 강습반당 학생수 : 5명 내외  
**문의** 생명산업과 031-481-2322

##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1주년 기념행사

**일시** 2016. 5. 25(수) ~ 5. 29(일)  
**장소**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1190-1(본오동)  
**주요내용**  
 - 우수 농특산물 장터 운영, 시식행사, 먹거리행사, 경품 추첨행사 등  
**문의**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031-437-5237



#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12일 폐회

## 이날 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실시·건의안 채택... 18일간 일정 마무리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4월 2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이달 11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초지 작은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각각 수정 의결했으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건은 각각 원안가결, 문화복지위원회 건은 부결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1조 4천 181억 9천600여만 원에서 30억 4천100여만 원(삭감율 0.21%)을 삭감한 1조 4천151억 500여만 원으로 확정했다. 의회는 특히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과 '강



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경기도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 3개 공공기관을 통합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를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아울러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살인 및 사체 유기사건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안산 대부도(토막) 살인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돼 안산의 도시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의 부당성을 알렸다.

# 안산시의회 '의회 교실', 지역 학생 참여 '뜨겁다'

안산시의회가 운영 중인 '의회 교실' 프로그램에 최근 지역 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삼일초등학교 학생회 임원단 42명이 시의회를 방문한 데 이어 19일에도 안산초등학교 3학년생 100명이 의회 교실에 참여해 의회의 주요 업무와 기능에 대해 소개 받고 시설 견학을 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수업에서 배운 지방자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으며, 의원들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의회 교실 참여를 마친 학생들은 의회와 정치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를 동안 진행된 '의회 교실'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면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높이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 '의회 교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4일과 31일에도 신길중학교와 별망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교실에 참여한다.



## 해외여행시 꼭 알고 가세요!



1.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2.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기타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 예방접종이 요구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복용해야 합니다.
  - 기존 복용약물(피임약 포함),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반창고, 살충제, 항생제, 일회용 밴드, 콘돔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하세요.
4.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5. 여행 전, 적절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 계획이 있다면 보험의 보상내용 및 범위 등을 확인하세요.



## 수두주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세요~

- 수두 등 감염병 예방법
  - 첫째,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 둘째, 수두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교사(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하며,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택 격리')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 \*격리기간 : (수두)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 예방접종받지 못한 어린이(만 12세 이하)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_ <http://travelinfo.cdc.go.kr>  
문의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031-481-5938)

 감염병 신고 및 문의  
단원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481-3475) / 모자건강담당(481-3515)  
상록수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481-5938) / 모자건강담당(481-5892)

본오뚜  
모심기

본오뚜 논에서 농부들이 정성들여 모심기를 하고 있다.  
안산은 어엿한 쌀 생산 도시이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바이오  
블리츠

갈대습지공원 바이오블리츠.  
바이오블리츠는 24시간 특정 지역의 생태환경을  
탐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 econojin@naver.com



# 진실한 사랑

주부모임 회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안산시내 중증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한다.

지난주에는 어르신 보호시설에 갔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이 침대에서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 온몸을 침대에 묶고 생활하고 계셨다. 점심 식사 때는 그 상태로 침대를 기역자로 꺾어 올려 앉은 자세로 해드린 다음 우리가 끓인 죽을 한 숟갈씩 먹여드리는데 봉사를 했다. 그런데 죽을 떠서 입에 넣어 드리는 날더러 할머니가 “한...숟갈 머...먹어”라며 내게 당신의 음식을 권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제가 할머니 점심 진지 뺏어 먹어도 괜찮아요?”라며 숟갈로 덩석 퍼 먹었다. 그러자 순간 그곳 관리인 한 분이 그 광경을 보고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때까지 그 눈빛의 의미가 뭔지 몰랐다. 그리고 점심식사 봉사가 끝난 뒤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시설에 와서 이 죽을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라고... 대부분 배부르다, 먹고 왔다, 괜찮다 하며 사양한다는 것이다. 그 말의 속뜻을 이해하고는 한동안 미안하고 죄송했다. 자원봉사 한 다며 속으로는 “이런 곳의 음식을 먹기에는 약간 꺼림칙해”라는 식의 약간의 가식이 있다는 말뜻에 혹시 나도 그동안 그런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

우리들은 자원봉사를 위해 영아원, 고아원, 양노원,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영세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사회의 어

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사랑을 나눠 갖는다. 모두들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신 분들이며 존경의 대상이다. 우리 이웃을 위해 이런 베품을 실천하는 분들은 정말 신이 내린 천사 아닐까. 봉사활동을 다니며 선한 행동을 하는 중에 심금을 울리는 사랑의 묘약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자. 봉사의 형식과 보이는 모습보다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된 사랑이 담긴 봉사로서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살려주고 행복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아원이며 양로원에서 그분들과 함께하고 대화하며 놀아주고 했던 그동안의 나의 행동에 상대를 감싸주는 진정성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들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거꾸로 그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우리 안산시민들은 이웃사랑 실천에 가식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 가득차 있는 분들을 믿는다.

김현주(단원구 너비골길)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 안산에서 무료인터넷이 급할 땐 “Public\_WiFi”



보는 것만으로 동공지진, 너무나 초조한 상황! 그래도 다행인건~

안산에서 무료인터넷이 급할 땐 “Public\_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시청민원실, 상록수·단원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최용신·성호기념관, 안산식물원, 갈대습지공원 전시관, 여성정보하우스,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제공중~

# 알아두면 유용한 소식 in 안산

## < 안산시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첫걸음~!!

**-안산시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 상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주민이 대상이며(부부 중 한사람만 등본상 주소지가 안산시만이어도 가능) 결혼예정 및 신혼부부면 누구나 가능
- 검사비 및 항목 :  
검사비는 무료이며 검사항목으로는 혈액검사 9종 (B형간염, 혈액형, 풍진항원항체, 빈혈, 매독, AIDS등) 및 요당, 요단백, 흉부 x-ray 촬영
- 준비서류 : 예비부부는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신혼부부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481-5975), 단원보건소(☎481-2554)



**안산시**

30

2016 안산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 여름잔치

청소년을 열정으로 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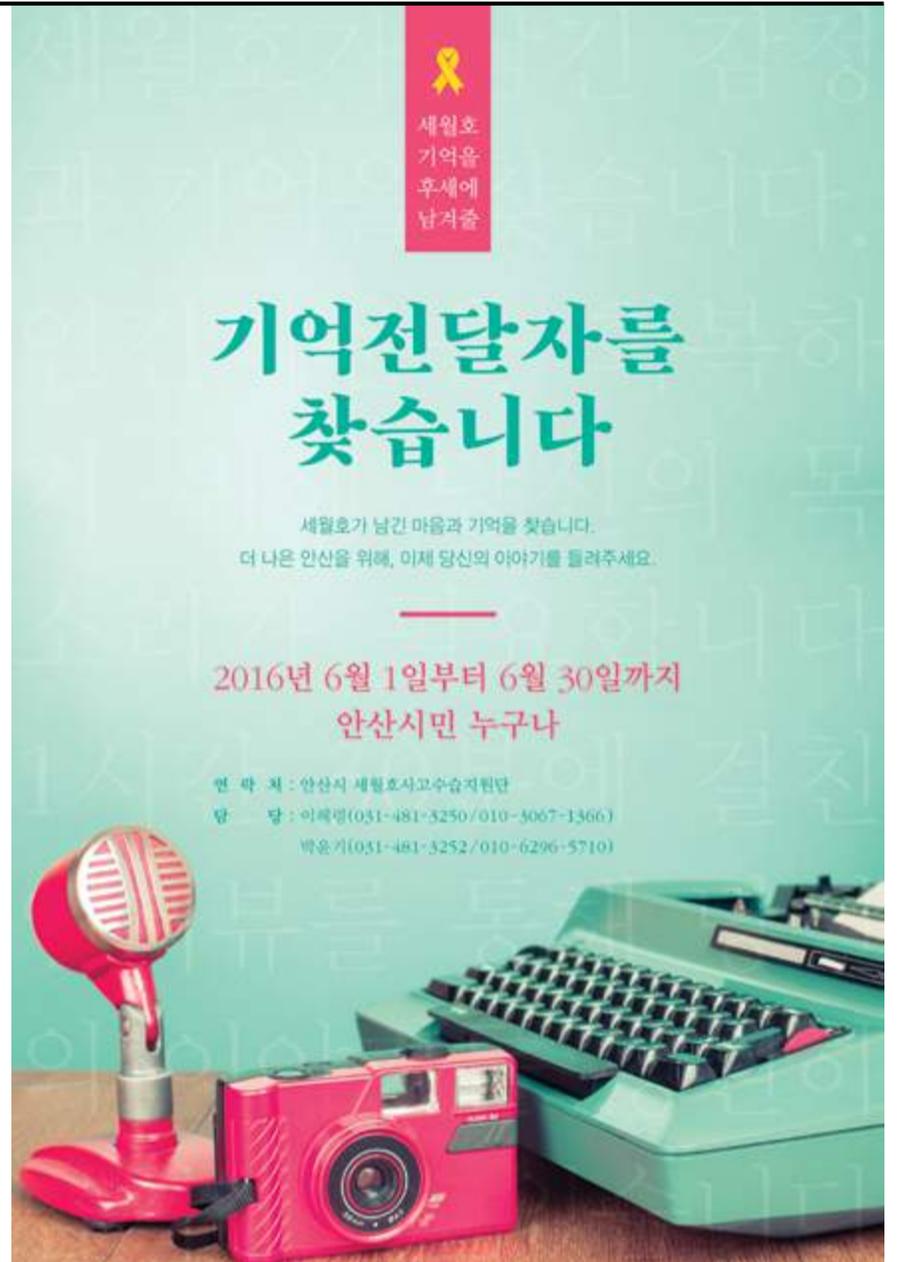
**열정Day** 2016. 5. 21(토) 14:00~18:00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신나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의 다채로운 부스! 열정 가득 청소년 동아리 공연!  
200명의 청중평가단과 전문가의 12개 인기 동아리 선정!!

**행복Day** 2016. 5. 28(토) 16:30~21:00 안산문화광장

1부 16:30~19:00 안산시청소년수련관 / 안산문화광장  
: 청소년의 달 기념 도보행진  
다양한 부스체험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어울림마당

2부 19:00~21:00 안산문화광장  
: 인기 청소년동아리 공연 - 댄스, 비보이, 노래, 퍼포먼스, 응원댄스 등  
※초청공연 : 컴블러크루(Mnet 댄싱9 시즌2,3 우승)

문의 : 활동진흥팀 412-1725    주최 : 안산시    주관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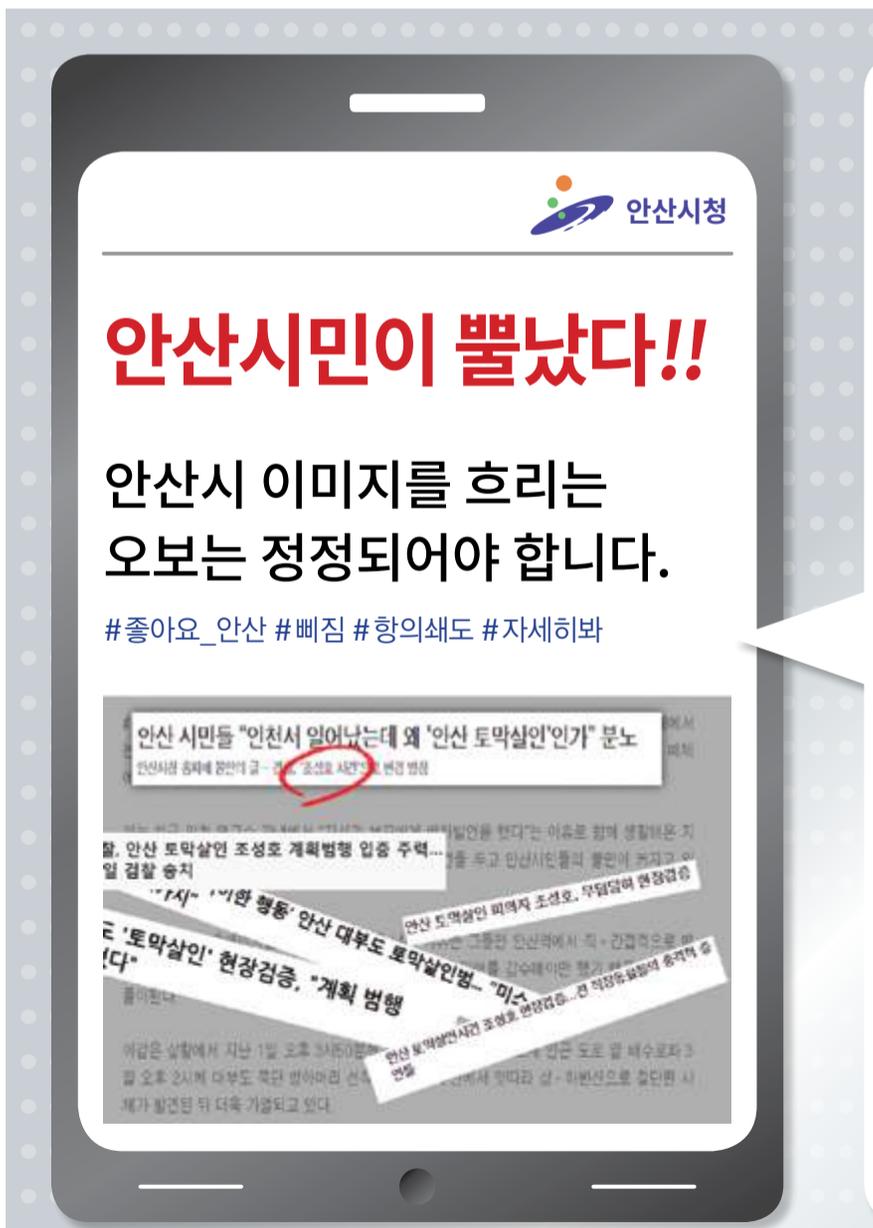
세월호 기억을 후세에 남겨줄

## 기억전달자를 찾습니다

세월호가 남긴 마음과 기억을 찾습니다.  
더 나은 안산을 위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산시민 누구나

연·박·차 : 안산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담    담 : 이혜영(031-481-3250/010-3067-1366)  
박윤기(031-481-3252/010-6296-5710)

**안산시청**

## 안산시민이 뿔났다!!

안산시 이미지를 흐리는 오보는 정정되어야 합니다.

#좋아요\_안산 #빠짐 #항의쇄도 #자세히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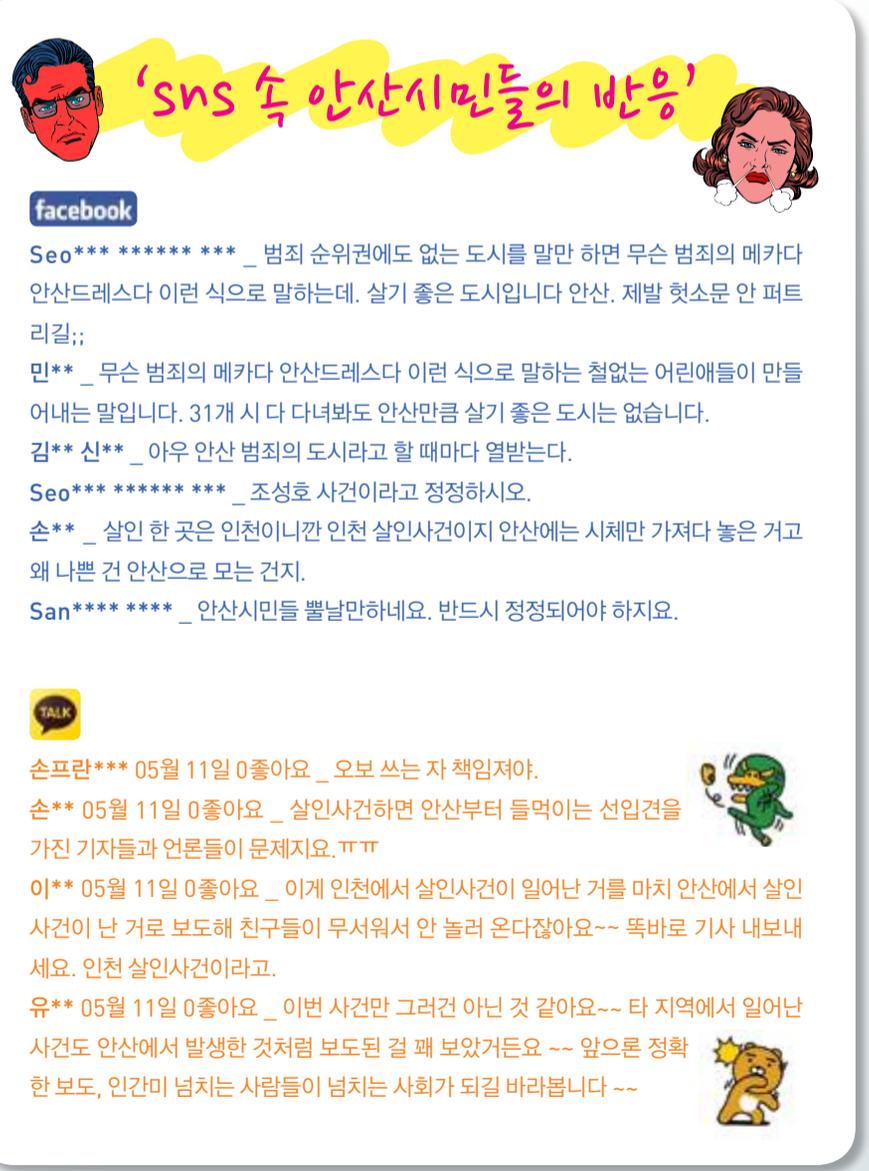
안산 시민들 "인천서 일어났는데 왜 '안산 토막살인'인가" 분노

안산 토막살인 조성호 계획범형 입증 주력... 일 검찰 송치

"자서" "이한 행동" 안산 대우도 토막살인범.. "미스"

안산 토막살인 '현장검증', "계획 범행"

안산 토막살인사건 조영호, 현영검... 권 의정동료에 송치



**'SNS 속 안산시민들의 반응'**

**facebook**

Seo\*\*\* \*\*\*\*\* \*\* \_ 범죄 순위권에도 없는 도시를 말만 하면 무슨 범죄의 메카다 안산드레스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안산. 제발 헛소문 안 퍼트리길;;

민\*\* \_ 무슨 범죄의 메카다 안산드레스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철없는 어린애들이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31개 시 다 다녀봐도 안산만큼 살기 좋은 도시는 없습니다.

김\*\* 신\*\* \_ 아우 안산 범죄의 도시라고 할 때마다 열받는다.

Seo\*\*\* \*\*\*\*\* \*\* \_ 조성호 사건이라고 정정하시오.

손\*\* \_ 살인 한 곳은 인천이니깐 인천 살인사건이지 안산에는 시체만 가져다 놓은 거고 왜 나쁜 건 안산으로 모는 건지.

San\*\*\*\* \*\* \_ 안산시민들 뿔날만하네요. 반드시 정정되어야 하지요.

**TALK**

손프란\*\*\* 05월 11일 0좋아요 \_ 오보 쓰는 자 책임져야.

손\*\* 05월 11일 0좋아요 \_ 살인사건하면 안산부터 들먹이는 선입견을 가진 기자들과 언론들이 문제지요.ㅠㅠ

이\*\* 05월 11일 0좋아요 \_ 이게 인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를 마치 안산에서 살인사건이 난 거로 보도해 친구들이 무서워서 안 놀러 온다잖아요~~ 똑바로 기사 내보내세요. 인천 살인사건이라고.

유\*\* 05월 11일 0좋아요 \_ 이번 사건만 그러건 아닌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도 안산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도된 걸 꽤 보았거든요~~ 앞으로 정확한 보도,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